

보리심 내어 佛身 구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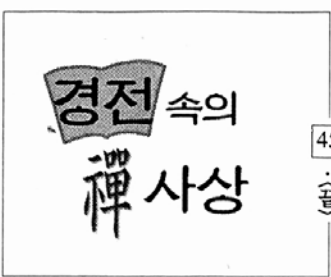
금강정경 ①

글쓴이



정태혁 (동국대 영예교수)

오상 가운데 통달 보리심·수보리심·성금강심은 마음에 속하고, 중금강심·불신원만 등의 금강견고신(金剛堅固身)은 몸에 속한다. 중금강심은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증득이요, 금강견고신은 심신일여의 묘용이다.



45 · 글

번뇌없고 정신집중 돼야 금강삼매 日月輪 관해 부처의 덕·지혜 얻어

오상성신관은 이 같은 심신일여의 경지에서 원만하고 견고한 청정보리심을 얻는 것으로, 먼저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월륜관(月輪觀)이나 일륜관(日輪觀)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 <보리심론(菩提心論)>에서 "수행자는 마음 속에서 일월륜(日月輪)을 관하여 본심을 조견한다. 담연(湛然)정정하여 마치 보

름달이 허공을 두루 비춤에 분별함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듯이, 만물은 본래 마음인 '여래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금강정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월륜과 같이 보라고 하였다. 일륜관은 부처의 덕을 얻는 관법이고, 월륜관은 부처의 지혜를 얻는 관법이다. <제불경계섭진실경(諸佛境界攝眞實經)>

태국 내나심판도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②

행복이 있는 곳 ②

모든 현상은 '덧없음(無常), 만족스럽지 못함(苦), 나라 함께 없음(無我)'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물을 좋고 싫음의 관점에서 보는 마음은 버리고, 대신 마음행김(正念)이라 불리는 초연한 관찰이 그 자리를 메우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사람들조차 이론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완강히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 갈애의 지배력이 워낙 모진 탓에 진실과 환상 어느 쪽도 놓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각적 쾌락은 그 자체로는 해로운 것이 아니니까 절도있게 즐기면 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을지 모른다. 그럴 듯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마음 속에는 즐거운 느낌, 즐겁지 않은 느낌, 그 어느 쪽도 아닌 중립적인 느낌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것들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지 추구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추구가 고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일반적 통념'을 들어보자. 불교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 우주가 대단히 조화로운 존재처럼 비쳐져 각

모든 현상은 덧없다

욕망에 대한 집착 단호하게 끊어야

개인의 생각지 미화시키는 영종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은 사물에다 즐겁고 편안한 얼굴을 씌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인연따라 생겨난 모든 존재의 궁극적 무가치성을 일깨우려 했기 때문이다. 또 감각적 쾌락이 가치있는 목표의 일부가 된다면 추구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비록 추구하는 바가 대단히 건전해 보일 지라도 결국 그것 또한 갈애를 실어내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건전성'이라는 말로 거창하게 포장해 해도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아와 세계, 그 두 가지로부터 공히 초연하다. 그는 어떤 보상도, 알아주기도 바라지 않고 자신과 남들의 안녕을 위해 행동한다. 그는 결과에 무관심하며,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따라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불자라면 마땅히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을 강그리 버리고, 그런 생각은 품기조차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행동은 어떠한가. 흔히 "어쩔 수 없어!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하면서 자기 변명을 일삼는다. 쾌락을, 재미를, 만족감을 게걸스럽게 탐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무력감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집착에 오래 길들여진 마음은 단순히 이론적 납득만으로 집착을 그만두지 못한다. 속절없는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일질을 하면서 '습'이라는 코퍼레에 꿰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다. 이런 댄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는 바로 자기 기만이다. 말로는 감각적 탐닉의 위험성과 절제의 이로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막상 결단의 순간을 맞닥뜨리면 도로 아마타불이 되고 마는 것을 보전대, 우리가 실제로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지혜는 결단과 마음의 때와 양립할 수 없다. 오종욱 기자(gobac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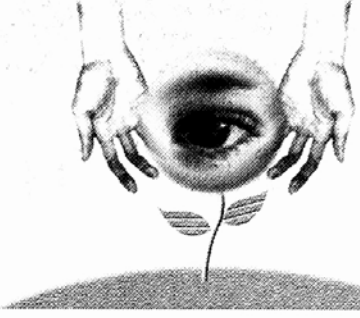
과학 산책

약한 상호작용

양자역학에서는 소립자에 작용하는 힘을 특정 양자가 서로 힘을 교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립자가 다른 소립자로 변환하는 과정은 일종의 '붕괴 과정'이다. 즉 '약한 상호작용' 역시 방사성 물질의 붕괴인 셈이다.

가설로 펴고 있는데, 4년 후인 1983년 이 입자가 유럽의 입자가속기 실험소에서 발견돼, 이 이론은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약한 상호작용, 즉 W, Z 보즈 입자의 경입자 전자와 중성미자는 서로 상대방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경입자인 뮤온

질량이 무거운 것을 빼고는 앞서 발견된 경입자들과 똑같다. 그러므로 약한 상호작용 매개 입자인 W, Z 보즈입자에 의해 경입자들이 하나의 경입자장(場)으로 표현 가능해진다. 또 W, Z 보즈입자의 흡수나 방출에 의해 쿼크의 향(flavor)이 바뀐다. 앞에서 우리는 중성자



약한 상호작용은 W, Z 보즈입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어나고, 전자적 상호작용은 광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생긴다. 이때 W, Z 보즈입자와 광자를 아교 입자(gluon, 글루온)라고 부르거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는 관점에서 '매개 입자' 혹은 '힘 전달 입자(force carrying particle)'라고 한다.

과 그 짝인 뮤온 중성미자, 타우온과 그 짝인 타우온 중성미자 개리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경입자는 다음과 같이 3세대로 나눌 수 있다. 1세대는 '전자, 중성미자', 2세대는 '뮤온, 뮤온 중성미자', 3세대는 '타우온, 타우온 중성미자'이다. 경입자의 다음 세대는

붕괴 과정이 바로 이렇게 향이 변해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드론들이 붕괴하며, 궁극적으로 안정된 하드론인 양성자만이 남게 된다. 쿼크도 경입자와 같이 3세대로 나눌 수 있다. 제1세대는 '업 쿼크, 아래 쿼크', 제2세대는 '기묘 쿼크, 매력 쿼크', 제3세대는 '꼭대기 쿼크, 밑바닥 쿼크'

이다. 또 쿼크의 다음 세대는 무거운 질량을 빼고는 앞서 발견된 쿼크들과 똑같다. 세대간의 통일, 즉 한 세대에서 나머지 두 세대의 쿼크나 경입자를 유도하는 것은 초끈 이론에서나 가능하다. 이러한 약한 상호작용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거운 W, Z 보즈입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고에너지는 정확히 정성 이론에서 가설하고 있듯이, 매우 짧은 공간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물리학자들은 전자와 중성미자의 교환은 '10의 마이너스 16승 센티미터' 이하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즉, 경입자의 통일성 그리고 통일의 속성인 대칭성은 더욱 섬세한 영역에 다가

갈수록 회복된다. 마치, 바닷물 표면의 파도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바다 밑바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래의 모습이 회복돼 단지 바닷물(근원)만 있는 것과 같다. 약한 전자 이론을 만든 와인버그는 자연의 근본에 깔려 있는 통일성에 대한 경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비록 대칭성이 우리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자연 가운데 갖춰져 있으며, 우리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신나는 착상이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파도 가라앉으면 바닷물로 하나되듯 소립자 붕괴되면 경입자장으로 통일

1960년대 후반에 그라쇼(Glashow), 사렘(Salam), 와인버그(Weinberg)는 전자적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이론인 약한 전자기 이론(Electroweak theory)을 제안. 그 공로로 1979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 이론은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W, Z 보즈입자를

가설로 펴고 있는데, 4년 후인 1983년 이 입자가 유럽의 입자가속기 실험소에서 발견돼, 이 이론은 실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약한 상호작용, 즉 W, Z 보즈 입자의 경입자 전자와 중성미자는 서로 상대방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경입자인 뮤온

질량이 무거운 것을 빼고는 앞서 발견된 경입자들과 똑같다. 그러므로 약한 상호작용 매개 입자인 W, Z 보즈입자에 의해 경입자들이 하나의 경입자장(場)으로 표현 가능해진다. 또 W, Z 보즈입자의 흡수나 방출에 의해 쿼크의 향(flavor)이 바뀐다. 앞에서 우리는 중성자

이다. 또 쿼크의 다음 세대는 무거운 질량을 빼고는 앞서 발견된 쿼크들과 똑같다. 세대간의 통일, 즉 한 세대에서 나머지 두 세대의 쿼크나 경입자를 유도하는 것은 초끈 이론에서나 가능하다. 이러한 약한 상호작용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거운 W, Z 보즈입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고에너지는 정확히 정성 이론에서 가설하고 있듯이, 매우 짧은 공간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물리학자들은 전자와 중성미자의 교환은 '10의 마이너스 16승 센티미터' 이하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즉, 경입자의 통일성 그리고 통일의 속성인 대칭성은 더욱 섬세한 영역에 다가

갈수록 회복된다. 마치, 바닷물 표면의 파도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바다 밑바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래의 모습이 회복돼 단지 바닷물(근원)만 있는 것과 같다. 약한 전자 이론을 만든 와인버그는 자연의 근본에 깔려 있는 통일성에 대한 경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비록 대칭성이 우리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자연 가운데 갖춰져 있으며, 우리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신나는 착상이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욕법 등 집안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4x6 판 / 3,5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큰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국판 /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원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력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x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윤희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희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윤희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풀 해설집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큰스님의 강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큰스님의 무애(無畏)를 담은 책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광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유성법문 테이프